

마산 연식품 (김연수씨)를 찾아서

인심 좋고 물 좋은 마산 -

무학산 기슭기에 자리하고 있는 김씨의 공장에서 출하하고 있는 콩나물은, 이곳 주민들에게 무공해 식품으로 귀여움을 독차지하며 식탁에 올려지고 있고, 마산지역 콩나물시장의 10%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마산의 명물인 아구찜에 없어서는 안될...



김연수씨와 마산시 회원동 649 김씨의 제1콩나물 공장

필자가 김연수씨의 콩나물 공장을 취재하기 위하여 마산에 도착한 것은 이른아침, 장거리 여행의 피로와 빈속에, 간간히 눈이 내리는 쌀쌀한 초겨울 날씨는 나그네의 허기진 뱃속을 자극 하기에 충

분 하였다.

이에 찾은 어느 한식식당의 인심 좋은 주인아주머니가 내어놓는 정갈스런 반찬속에 끼어있는 콩나물 무침을 대하니 10년지기를 대 한듯 반갑기만 하다.

혹시 이 콩나물도 김연수씨의 공장에서 출하되었을지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로 한결 정겹게만 느껴진다.

필자가 찾은 김연수씨의 콩나물 공장은 마산시 회원동 649번지,

마산 시가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무학산 기슭기에 자리하고 있다. 약 130평의 대지위에 지은 2층건물중 1층에 약80평을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마산시 신포동에 약60평 정도의 제2공장이 있다 한다. 김씨는 이 두곳의 공장에서 매일 230여kg의 콩나물을 재배하여 마산시 일원에 공급하고 있으며, 이 지역의 콩나물시장 점유율 약10%정도 차지하고 있다 한다.

그는 1950년 마산에서 태어나 성장 과정에서 풍요롭게 자라지는 못했지만 1968년에 마산공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할 때까지 그런대로 남부럽지 않게 살아왔다 한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몇년전에

시작한 아버님의 두채업이 4남3녀가 무난히 성장하여 훌륭한 사회인이 되게한 큰 뒷받침 역할을 해주었다 한다.

1975년도에 결혼하여 1남1녀의 단란한 자녀를 둔 화목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도 하나의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님을 정성껏 공경한다거나, 행복한 미래의 가정을 추구하기 위해 변변한 취미조차 재대로 갖추지 못할 정도로 가정적이면서도 요즘은 젊은이답지 않게 보기도문 성실파라 할 수 있다.

김연수씨가 두채업에 종사하게 된 것은 30여년 전에 시작한 부모의 가업을 7남매의 형제중 유일하게 계승받아 직접 경영하기 시작한 것은 약15년이 되나 오늘에 이르기까지는 무수한 고난과 시련을 극복하면서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한다.

“꾸준한 노력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성과가 따르게 마련이죠”

오늘에 있기까지 사업상이나 기타 여러가지의 어려움이 뒤따랐으나, 묵묵히 참고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성공할 날이 온다는 것은 그의 인생관이자 기업경영의 철학이라고 생각하였지만 그 어려운 경영중 새로운 두채 업자가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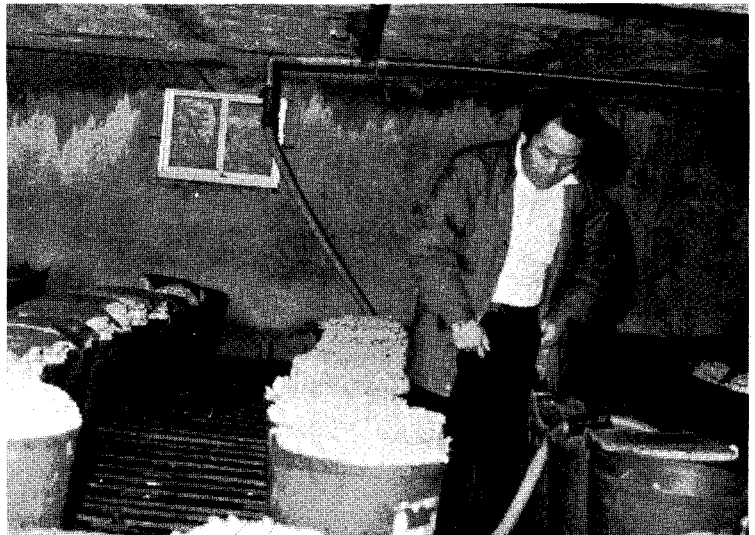
타나 자신의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질서를 무시한채 유통상태를 문란시키는 그런일만 큼은 정말 견디어 내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결국은 그 새로운 업자 자체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파놓은 구렁속으로 빠지게 되면 헤어 나지 못하고 두채업에서 손을 놓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는 비극적인 종말로 끝을 나게 되지만, 현재에도 마산 지역에는 이를 느끼지 못하는 몇몇의 신규 업자들이 콩나물 시장 유통 구조를 흐려놓고

있어 마산지역 두채업자들이 많은 곤란을 겪고 있다.

이들 악덕 신규업자들도 전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얼마간의 출혈 후에는 도산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말지만 그 후에 오는 여파는 기존 업자에게 너무 큰 고통을 안겨준다고 한다.

“생업을 목적으로 두채업을 시작하여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과욕에 의하여 기존의 유통 질서를 문란시키고 더 나아가 농약 콩나물 사태로 까지 간다면, 우리



김씨가 자신의 콩나물공장에서 재배되는 콩나물을 살펴보고 있다.



“생업을 목적으로 두채업을 시작하여 선의의 경쟁을 한다는 데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과욕에 의하여 기존의 유통질서를 문란시키고 더 나아가 농약콩나물 사태까지 간다면 우리 전체 두채업자의 공동이익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못되며……”
김씨는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의 억양을 높여—

전체 두채업자의 공동이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 되지 못하며 나아가 국민 식생활 경제에 커다란 손실과, 식생활 문화에 콩나물이라는 귀중한 전통식품이 영원히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업자 모두가 자각하고, 신규로 동업에 참여하는 자는 스스로가 자제를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 특유의 경상도 사투리로 목소리를 한층 높혀 강조 하기도 하는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업자 공동이익적인 차원에서 순수히 업자들로 구성된 강력한 제도적 단체나 협회가 하루속히 구성되어 업자와 업자사이 업자와 소비자 또는 행정관청간의 견해차이와 이해관계를 조절하여야 하고, 우리 업자들도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이익만을 생각하지 말고, 장기적인 안목으로서 진정한 이익을 위하여는 어느것이 가장 바람직 하느냐 하는 것은 자신들이 알아서 대처해

야 할 것이다”고 한다.

마산 지역에도 순수한 업자들로 구성된 친목회가 1974년에 결성되었던 적이 있었으나 각자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한 결과, 자연히 그 조직이 와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전철을 토대로, 1984년에 재정비 하여 그간의 결점을 보완하는등 지금은 상호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한다.물론 여기에는 김연수씨의 숨은 노력의 결집체라고 할만큼 그동안 쏟은 정성이 남달리 많음을 실감할 수 있게 한다.

“물 좋은 고장 마산이라카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절대 없지 않습니까?”

그 좋은물 덕분에 농약콩나물이라 하는 것은 이곳 마산지방에서는 있을 수 없음을 강조하고, 굳이 마산의 자량을 요구하는 필자에게, 마산은 인심 좋고, 물 좋고, 음식 맛 좋은데 특히 마산의 명물인 아구찜은 그 어느 고장에서도 맛볼 수 없는 별미로 손꼽히고 있으나, 그 별미의 비결은 좋은물에서 깨끗하고 무공해로 길러내는 콩나물 덕이 아니겠느냐 하며 은근히 마산 콩나물의 자량을 하기도 한다. 이런 아구찜을 음미해보지 못하고 돌아서는 필자의 발걸음은 마냥 아쉬움기만 하였다. ●